

문화산책

장경화

한국문화예술포럼 대표



신양파크호텔을 광주시가 언제 어떻게 구입하게 되었는지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왕 구입되었으니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하는 생각에 제언을 더 한다.

광주시에서는 활용 방안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과 ‘생태문화공원’ 등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구) 신양파크호텔의 환경과 공간,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를 참고한 오피니언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대미술관 기능이 중심되는 문화생태공원이 바람직하겠다고 본다.

미술관(박물관)은 지역사회에 ‘사회교육기관’으로 문화공원이자 문화발전소로 확장성과 역동성으로 어떠한 주제로도 시민의 호흡을 맞출 수 있기에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에는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문화공간의 상징사례

2차 대전 이후, 스페인의 철강도시 ‘빌바오’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 어두운 그림자를 문화도시로 재생하고자 1980년대 중반, 빌바오 시장과 의회는 시민과 중앙정부 설득한다. 그리고 1997년 ‘빌바오구겐하임’을 탄생시켰다. 당시 구겐하임미술관 또한 만성적자라는 어려운 문제를 프랜차이즈 3번째 분관으로 돌파하고자 했다.

빌바오시는 미술관 부지와 설계비용과 건축비용 부담하고 구겐하임은 파격적인 건축디자인과 혁신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빌바오 시민의 열정과

신양파크호텔, 프랜차이즈 전략으로 본다

탐으로 오늘날까지 세계 건축인과 미술인의 성지가 되어 매년 100만이 넘는 관람객 유치로 2조원의 경제효과를 일구는 유럽의 아름다운 10대 도시가 되었다.

물론 많은 예산을 스페인 정부와 빌바오시가 부담을 했으나 양질의 일자리와 인근 주민의 민박, 카페, 식당, 샵 등으로 수익 올리고 또한 주민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인근 주민은 자원봉사단을 구성, 미술관 주변 방법과 청소를 담당한다.

그리고 빌바오시에서는 미술관 인근에 호텔 건립을 허가하지 않고 관광객을 주민이 운영하는 민박으로 유도하고 있다. (필자 역시 빌바오 방문시, 미술관 인근의 친절하고 깔끔한 민박(노부부 운영)을 이용했다.) 이렇게 인근 주민은 없었던 수익이 발생하니 더욱 미술관 운영에 적극적이다.

구겐하임미술관은 밤 11시까지 운영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빌바오 시민의 문화놀이터이자 관광포인트로 자존이자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이로서 빌바오는 어둠이 깊게 드리워진 도시의 인구는 더 이상 줄지 않고 수많은 관광객으로 넘치는 활기는 유럽의 어느 도시에 부족함이 없다.

△타산지식의 지혜를 교훈으로

신양파크호텔의 과제를 빌바오의 프랜차이즈 전략의 사례로 중첩시켜 바라보자.

광주시는 부지와 건물이 있다. 이 조건 위에 ‘삼성리움 미술관 분관’을 유치하면 어떠한가? 삼성은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는 아시아문화도시에서 미술관 운영한다는 충분한 명분과 기업의 문화적 이미지의 글로벌 확장성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리움미술관은 많은 작품을 기증(이건희컬렉

션)하고도 세계적인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삼성은 세계 최고가 아닌 문화프로젝트는 진행하지 않는다. 삼성에서는 의사결정만 하면 신양파크 건물과 주변 환경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설계와 콘텐츠로 운영을 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다.

삼성은 수년 전부터 백색가전 광주공장 생산라인 이전을 저렴한 인건비 명분으로 베트남, 멕시코로 이전을 흘리면서 분위기를 몰아간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생명, 전자)을 올리는가? 이러한 삼성에 ‘광주리움미술관’ 설치의 화두를 던질 때가 되었다. 삼성이 년간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여 미술관 운영은 조속치할일 것이다. 외에도 삼성은 현 정권을 탄생시킨 광주에 빚이 있다. 이러한 무거운 과제를 위해 광주 정치력으로 중앙정치권과 삼성과 협상이 불가능하겠는가? 광주 시민이 있는데….

어떻게 했던 리움미술관 광주 분관이 유치된다면 재정력이 약한 광주는 양질의 일자리, 예산절감,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세계적인 삼성이 어울려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와 인프라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1타 3피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0여년 전, 빌바오의 프랜차이즈 전략을 타산지식 교훈을 광주가 주저할 바 아니다. 문제는 광주시와 의회의 사심이 없는 의지와 열정으로 ‘광주리움생태미술관’ 유치를 위한 민·관·정 추진위원회 구성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최근 부산에서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와 함께 ‘부산 풍파두센트’ 개관을 준비 중이다.

※ 위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5월항쟁의 속살에 다가가는 무대예술

전용호

소설가
오월문예연구소 위원

5월항쟁을 다룬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그로써 45년 전 아시아의 조그마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중수도시인 광주에서 발발한 5월항쟁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강 작가는 2020년대 우리 광주의 자랑스런 딸이자 대한민국의 영웅이다. ‘소년이 온다’는 5월항쟁을 다룬 문학작품이다. 5월항쟁을 다룬 예술은 문학 외에도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영상 등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5월항쟁의 진상을 알리는 내용으로 작품들이 전개되었다.

시민들의 ‘오월시(1981-)’,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1982)’, 홍성담의 오월 판화(1983-), 임철우 작가의 장편소설 ‘불날(1987-97)’,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1988)’, 연극 ‘금희의 오월(1988)’, 영화 ‘부활의 노래(1991)’, 판소리 ‘5월 광주(1990)’ 등이 그것이다. 1990년을 넘어 200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항쟁 과정의

다양한 활동과 항쟁 이후의 삶을 다루는 예술작품들이 줄기차게 등장하였다. 그중에서도 올해 2025년 발표된 2편의 연극이 눈길을 끈다.

하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만행을 알린 ‘투사회보’의 필경사 박용준(1956~1980) 열사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으로 5월에 공연한 ‘광천동 청년 응준씨’다.

이 연극은 극단 토박이가 2024년에 첫선을 보인 후 올해로 두 번째 공연한 작품이다. 연극은 1978년 들불야학 단합대회를 시작하여 고이인 박용준이 1980년 5월항쟁에 들불야학 동료들과 함께 투사회보를 제작하는 장면과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박용준, 투사회보를 수거하는 계엄군 등으로 전개된다. 실제 박 열사는 고아로 구두타이와 신문팔이로 학비를 벌며 야간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들불야학에 참여했다. 글씨를 잘 썼던 그는 들불야학에서 생활 강학 시절 교재나 나무 도장, 간판 제작을 도맡았고 5·18 때는 투사회보 글씨를 맡았다.

박 열사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광주진압작전 때 ‘투사회보’를 제작했던 광주 와이더블유시에이(YWCA) 건물을 지키다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2021년 5·18 41주년 때 박 열사의 글씨체(투사회보체)를 무료 배포하며 각종 5·18 관련 자료에서 박 열사의 글씨를 활용하고 있다.

또 하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초를 당한 안병하 치안감의 이야기다. 이 작품은 이재의 작가가 쓴 ‘안병하 평전’을 원작으로 5·18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서 광주·전남 치안을 책임졌던 안 치안감의 이야기를 다뤘다.

그동안 5·18을 주제로 한 인권 인형극, 민주 평화 아동극, 성인극 등을 선보인 극단 도깨비가 제작했다. 연극은 5·18 당시 안 치안감이 광주 시민과 경찰을 지키기 위해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상황과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을 무대 예술로 살려냈다.

안 치안감은 5·18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1980년 5월 26일 직위 해제를 당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돼 고문 수사를 받았다. 그는 1988년 10월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안 치안감은 2002년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고 2017년 11월 ‘제1호 경찰 영웅’으로 선정되며 치안감으로 추서됐다. 그동안 5월항쟁을 예술로 형상화한 작품들이 항쟁의 전개 과정과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 작품들은 역사의 현장 뒤에 숨겨져 있던 인물과 이야기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5월항쟁을 다룬 예술작품들이 더욱 폭넓고 속 깊이 변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자투고

범죄없는 농촌마을 함께 조성해야

요즘 도시생활에 적응을 느끼고 귀향하거나 노후생활을 위해 농촌에 전원주택을 짓는 귀향붐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전원주택과 한옥마을 상당수가 도심과 달리 농촌 동네와 떨어진 인적이 뜸한 야산지대에 위치해 방범용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많다. 주말에 만 왕래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검은 손길이 미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실 대부분 농촌지역은 특성상 아침에 들녘에 나가 해질 무렵 다시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절도범의 표적으로 전략할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물론 이들 전원주택이나 한옥마을 단지가 강도나 절도와 같은 강력범죄 발생빈도가 도심 주택가에 비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빈집털이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조금만 주의하고 주변을 살펴보면 예방할 수 있다. 집을 나서기 전 현관, 대문 뿐만 아니라 창문까지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외출을 해야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다.

경찰의 범죄예방 노력과 농민들의 범죄신고 체계가 조화를 이룬다면 범죄 없는 평화로운 내 가정, 내 마을을 만들 수 있다. 김택형 장성경찰서 경무계장

OPINION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사설

30년새 출생아수 70% 줄어…대책 시급

최근 30년간 지역의 결혼 건수와 출생아 수 변화추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지표가 나왔다. 최근 통계청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변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의 혼인건수는 5688건으로 30년 전인 1995년의 1만377건보다 45.2% 줄었고 전남도 지난해 7049건으로 30년전 1만6789건보다 58.0%나 감소했다.

1000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도 광주의 경우 1995년 8.1명에서 지난해 4.0명으로 절반 이상 떨어졌고 전남은 7.7명에서 3.9명으로 주저앉았다.

당연히 출생아 수도 추락했다.

광주는 1995년 2만2900명에서 지난해 6000명으로 무려 73.7%가 줄어들어 전국 평균 증감률(66.7%)을 크게 상회했다.

전남도 이 기간 2만8200명에서 7800명으로 떨어지며 75.1%의 감소를 보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광주는 1995년 1.83명이었는데 지난해 0.79명으로 61.8% 감소,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전남 역시 1.78명에서 42.3% 줄어든 1.03명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1명 이상인 광역시·도는 세종(1.03명)과 전남 뿐이라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이같은 현상은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또 개인주의 확산과 커리어와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진데다 취업난, 고용 불안정, 높은 주거비 등 결혼·출산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것도 한 몫했다.

문제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각종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낮은 출생률로 노동력 공급이 줄면서, 노동 시장에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젊은 층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곡성 ‘매일 만나는 소아과’ 좋은 행정

곡성군이 운영하고 있는 ‘매일 만나는 소아과’가 큰 인기라고 한다. 지난 5월2일부터 군 보건의료원에서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수요일 9시~12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용객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최근 소아과 상시진료 개시 100일 맞아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전원(100%)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로 답할 정도다.

만족 이유로는 ‘친절한 진료’(52%)와 ‘가까운 거리’(28%)가 가장 많았으며, 이용객 4명 중 3명은 재방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곡성군이 전문의가 상주하는 소아과가 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곡성군은 인구 수 2만6592명(8월 현재)의 농촌지역으로 전남 22개 시·군중 인구수가 구례군(2만3865명) 다음으로 적어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사정이 그러다 보니 의료취약지대일 수 밖에 없고 당연히 군내에 소아청소년과 의원도 없었다.

결국 아이들은 대도시인 광주·수주 가까운 전북 남원시로 원정진료를 다녔다.

이에 곡성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정기부 사업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해주세요’를 추진했고 결국 소아과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해 8월부터 대도시 소아과 전문의의 출장 진료 형태인 ‘처음 만나는 소아과’를 옥곡통합보건의소에서 주 2회 운영해 왔다.

이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고, 결국 이번엔 전문의가 상주하는 소아과를 정식 개설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이를 응원한 기부자들의 공이 무엇보다 컸다.

기부자들은 이 사업에 공감해 SNS에 응원댓글(670명)을 달거나 소아과 사업에 기부(2767명)했고 곡성사랑응원단(7389명)과 곡성군 소아과 이용자(잠재적 이용자 포함 2400명) 등도 적극 가세했다.

곡성군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 지난해에는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 모셨고 이번에는 군수가 직접 삼고초려해 가며 겨우겨우 성사시킨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곡성군의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